

## 만5세 하루 일과 별 사례 및 부모역할

|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 |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모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어나기           | 유아가 잠에서 깨지 못하자, 부모가 이불을 제치고 유아를 안아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는 행위<br>- “일어나지 않으면 엄마, 아빠 다 출근할 테니, 너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.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아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, 부모는 계속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사 시간          | 식사 시간에 궁금한 질문이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는 유아에게<br>- “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”<br>- “늦게 먹으면 OO 안 준다.”<br>- “궁금한 것도 많네, 넌 꼭 밥 먹을 때 말이 많더라.”(부정적인 어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이 시기 유아는 호기심이 많고,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즉시 답을 알고 싶어 한다. 부모는 유아의 이 같은 발달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식사시간이 가족간의 즐거운 대화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.<br>- 식사 시간에 음식과 연관된 지역, 문화 등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. 부모는 가족간의 대화가 충분히 오갈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을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. |
| 실외놀이           | 놀이터에서 기어오는 애벌레를 보고 무서워 크게 비명을 지른다.<br>- “소리 지르지 마, 하나도 안 무서워, 애벌레잖아. 이게 나비가 되는 건데 뭐.”<br>유아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면서<br>- “어디 만져봐, 괜찮잖아. 우리 OO 겁쟁이구나.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아들은 경험하지 않은 동물에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. 부모는 유아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“여기 벌레가 널 다치게 할까봐 무섭구나. 아~ 그래 엄마도 그런 적이 있단다. 그런데 사실은 이 애벌레가 널 하나도 해칠 수 없어.”라며 불안감을 달래 준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목욕시간           | 욕조에 거품을 만들어 씻기 좋아하는 유아가 화장실에서 나올 줄 모를 때<br>- “목욕을 그렇게 오래하면 어떡하니. 엄마가 너 보살피느라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겠구나.”<br>- “목욕은 놀이시간이 아니다. 얼른 씻고 나가야 하니 서두르자.”<br>- “목욕하는 것만큼 다른 일도 열심히 잘해 보자. 책도 이렇게 오래 읽었으면 좋겠구나.” | 유아들은 씻는 동안 물이나 비누거품을 이용해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. 부모는 유아가 욕조에 오래 있어도 조금해 할 필요 없다. 목욕 전 유아와 목욕 시간을 정하고, 지킬 수 있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